

**Half-Fourier Single-Shot Turbo Spin-Echo 기법을 이용한
자기공명 횡담관조영술의 진단적 가치**

**김태경, 최병인, 한준구, 김선주, 왕문초
서울대학교병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**

목 적: 여러 횡담관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half-Fourier single-shot turbo spin-echo (HASTE) 자기공명 횡담관조영술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: CT 또는 초음파 영상에서 횡담관의 이상이 발견된 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.0T MR 기기를 사용하여 HASTE 기법 (TR/TE/ETL/NEX, 18/87/240/1)으로 자기공명 횡담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. 스캔은 body coil과 phased-array surface coil을 사용하여 관상면과 사위 관상면으로 환자가 숨을 참은 상태에서 (18초) 시행하였다. 단면 영상과 maximum intensity projection 영상을 함께 보면서 두 명의 판독자가 전체적인 영상의 질을 평가하였고, 횡담관을 여러 분절로 나누어 각 부위의 영상화 및 확장 유무, 폐쇄와 총만결손의 유무 및 위치를 평가하였다. 이 결과를 직접 담도조영술 (n=26), 수술 결과 (n=7), 또는 CT 및 임상적 진단 (n=3)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평가하였다.

결 과: 만족스러운 자기공명 횡담관조영술 영상을 29예 (81%)에서 얻었다. 28예 (78%)에서 전체의 담관 분절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일부의 담관이 보이지 않았던 8예 (22%) 중 폐쇄 이하의 허탈된 총수담관이 보이지 않은 경우가 4예 (11%), 늘어나지 않은 간내 담관의 일부가 보이지 않은 경우가 3예 (8%), 담관내 공기에 의한 경우가 1예 (3%)였다. 횡담관은 두부, 체부, 미부에서 각각 7예 (19%), 5예 (14%), 9예 (25%)에서 관찰할 수 없었다. 횡담관의 확장 유무와 폐쇄 유무 및 위치는 모든 예 (100%)에서 정확히 진단하였다. 횡담관 내의 담석 또는 체석에 의한 총만결손은 28분절 중 27분절 (96%)에서 진단하였다.

결 론: HASTE 자기공명 횡담관조영술은 여러 횡담관 질환의 영상에 유용하다.